

한국어 강의 담화에 나타난 강조 발화의 특성

정 명 숙

Abstract

Jung Myungsook. 2012. 10. 30. **The Features of Emphasized Utterances in Korean Lecture Discourse.** *Bilingual Research* 50, 193-213. ‘Listening lectures’ is not only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s for Korean learners with academic purposes to succeed in studying in Korean universities, but accounts for the biggest portion in their successful academic achievement as well. Thus, it is vital to teach foreign students strategies to listen lectures efficiently. Out of various strategies for listening lectures, the most important strategy is how to distinguish what is important from what is not. The meaningful part of a lecture appears with the lecturer’s emphasized utterances and the way to emphasize important parts could be universal in language, however, there are still different features in each language. However, there hasn’t been any studies on the features of emphasized utterances in Korean. This study recorded actual lectures in Korean, analyzed the features of emphasized utterances, and then classified them according to the types in order to develop a teaching method in ‘distinguishing emphasized utterances’, one of the essential strategies in listening lectures for the learners with academic purpose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two types of emphasis in Korean emphasized utterances: One is depending on the lexical, syntactic devices including using discourse markers, repetition of core contents, using antithesis, questioning, expressing core contents like proposition, and the other is due to the phonetic realization including speaking with accent, slowing the utterance speed, putting pause before or after important content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강조 발화(emphasized utterances), 강의 듣기(listening lectures), 강의 담화(lecture discourse), 학문 목적 학습자(Korean

learners with academic purpose), 한국어 듣기 교육(teaching Korean listening)

1. 서론

최근 한국의 대학으로 유학 온 외국인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들이 한국의 대학에서 성공적으로 수학하려면 무엇보다도 대학 강의를 수강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 의사소통 기능을 익혀야 한다. 대학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강의를 듣고 교수에게 질문을 하고, 조별로 토론을 하고, 전공 서적이나 논문을 읽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문이나 발표 자료를 만들고 발표를 하고, 시험 답안을 작성하는 등 다양한 의사소통 활동을 하게 된다. 이 중에서 대학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강의 듣기’일 것이다. 전공 영역에 따라,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학 강의는 대부분 대규모 강의이기 때문에 대체로 강의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학 강의 수강에서 ‘강의 듣기’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강인선(2005)에서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듣기가 가장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특히 적극적인 학습자들은 수업 중에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소극적으로 강의를 듣기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학생들에게는 강의 듣기의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처럼 대학 수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사소통 기능이 강의 듣기이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의 듣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을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2000년대 이후 학문 목적 학습자의 급증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 중에서 학문 목적 학습자에게 매

우 중요한 기능인 강의 듣기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연구 주제는 강의의 담화 구조나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오선경 2006), 강의 듣기에 사용되는 전략에 대한 연구(배윤경 2011), 강의 듣기 전략을 교수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노선미 2007), 전략 교수의 효과에 대한 연구(구지민 2004, 손정란 2009) 등으로 매우 깊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양한 강의 듣기 전략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이 강의를 들으면서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강의는 일방적인 발화, 즉 독백에 속하기 때문에 교수 혼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발화를 지속해 나간다. 적어도 1시간, 2시간, 길게는 3시간 동안 이어지는 강의를 듣는 동안 청자는 듣는 것에 계속 집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실 강의를 듣는 동안 계속 집중을 할 필요도 없다.

듣기라는 것은 청자가 자신의 배경 지식을 이용해 자신에게 필요한 이해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며, 실제로 청자는 화자의 말의 일부만을 듣고 나름대로의 의미를 완성한다. 교수와 학습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경우 학습자는 교수자가 가르친 것의 일부만을 학습하고 나머지는 수업한 것과 상관없이 어떤 것을 학습하게 된다. 결국 교수와 학습 사이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괴리를 좁혀 주는 방법은 학습자가 교수자의 발화 의도를 파악하는 것, 즉 강의의 요지를 파악하는 일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강의를 들을 때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강의의 중요한 내용은 교수자의 강조 발화로 나타날 수 있는데, 언어보편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말할 때는 목소리가 커진다거나 발화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너~무’와 같이 한 음절을 길게 늘여서 발음하면서 목을 쥐어짜는 듯한 소리를 내서 강조를 하는 데 반해 영어의 경우 ‘very very’와 같이 부사를 반복함으로써 강조를 한다.

이렇듯 언어마다 다른 강조 발화의 특성이 존재할 수 있는데, 한국어

강조 발화에 대한 연구는 ‘강조 표현’에 대한 연구가 다소 이루어져 있다.(정재형 1987, 임성규 1989, 이정미 1993, 박내별 2010) 이들 연구는 문어에 나타나는 강조법이나 일상 대화에 나타나는 강조법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강의 담화를 대상으로 강조 발화의 특성에 대해 연구한 것은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 강의를 듣는 데 필요한 전략인 ‘강조 발화 구별하기’를 교육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제 한국어 강의록을 녹취하여 발화에 나타난 강조 발화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2. 강조 발화의 유형

한국어 강의 듣기의 전략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강의를 듣는 핵심 기술 또는 전략으로 주로 ‘핵심어나 핵심 내용 찾기’를 꼽곤 한다. 즉 강의를 들을 때, 특히 외국어 강의를 들을 때 전체 내용을 모두 완벽하게 듣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비효율적이므로 핵심어를 중심으로 듣고 핵심어들을 연결해 전체적인 의미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듣기 기술 중의 하나로, 이해영(2002)에서도 핵심 정보를 기억하라거나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메모를 하라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강의에서 어떤 것이 ‘핵심어’인지, ‘핵심 내용’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강의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나 모국어로 된 강의를 듣는 경우라면 핵심어를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언어마다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언어마다 다른 강조 발화의 특징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강의라는 학문적인 담화에서 활용되는 강조 발화의 특징은 다를 수 있다.¹⁾ 이에 본고에서는 실제 한국어 강의를 녹음, 분석하여 강의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다양

한 방식을 찾아내고자 한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기존 연구에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강조 발화의 개념을 정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강조 발화의 유형으로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강조 발화라는 것은 기존의 국어학 연구에서는 ‘강조 표현’으로 명명되기도 했는데, ‘강조 표현’이라는 것은 강세나 억양, 휴지 등과 같은 운율적 특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되기 어려워 본고에서는 ‘강조 발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강조 발화는 ‘화자가 자신이 말할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청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발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이는 일종의 상호작용적 메타담화표지로서²⁾ 화자가 특정 내용을 보다 분명히 알려 청자로 하여금 해당 요소에 밑줄을 긋도록 하는 것(Brown & Yule 1983)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다음으로 강조 발화의 유형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앞서 언급한 현대 국어의 강조 표현과 관련된 선행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유형이 추출될 수 있다.

-
- 1) 정재형(1987)에서 한국어 강조 표현의 예로 ‘-다니까’와 같은 어미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는 일상 대화에서는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강의 담화에서는 거의 사용되기 어려운 형태이다.
 - 2) 메타담화표지는 Schiffrin(1980)에 의해 일반화된 용어로, 이것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었는데 초기에는 텍스트의 흐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표현에 국한된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나 Hyland(1998) 이후에는 텍스트의 구조를 나타내 주는 텍스트의(textual) 메타담화표지와 생산자와 수용자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대인적(interpersonal) 메타담화표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Hyland(2005)에서는 이를 다시 상호적 메타담화(interactive meta-discourse)와 상호작용적 메타담화(interactional meta-discourse)로 구분하였으며, 상호작용적 메타담화에는 완곡 표현(hedges), 강조 표현(boosters), 태도 표지(attitude markers), 본인 언급(self mentions), 수용자와의 관계 표지(engagement markers)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1) 선행 연구에 나타난 한국어 강조 표현의 유형

- ㄱ. 어미 : -다니까, -다면서 등
- ㄴ. 반복 : 자꾸자꾸, 차디차다 등
- ㄷ. 초점 : 뭘 전공했어요? 연극을 전공했어요.
- ㄹ. 분열문 : 내가 전공한 것은 연극이다.
- ㅁ. 도치 : 나도 해 봤잖아. 연극.
- ㅂ. 주제화 : 연극이라고 하면, 나도 해 봤지.
- ㅅ. 강세 : 나는 연극을 전공했다.
- ㅇ. 휴지 : 이것은 연극...인테

(1)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특정 어미의 사용이나 반복, 도치 등 여러 구문의 변화와 같은 통사적 장치를 통한 강조 유형과 강세와 휴지 같은 음성적 장치에 의한 강조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Hyland(2005)에서 제시한 상호작용적 메타담화표지 중에서 강조 표현(boosters)을 보면 ‘in fact, clearly, of course, must, merely’ 등과 같이 특정한 어휘의 사용에 의한 강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해영(2002)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활용할 만한 듣기 전략을 정리하여 31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에서 강조 발화의 특성에 대해 ‘말의 속도가 갑자기 변화되고 천천히 명백하게 강조하여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이는 중심 생각이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라고 하여 발화 속도의 변화나 발음의 명료도 등도 강조 발화의 한 유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한국어 강조 발화의 유형은 크게 1) 통사적 장치에 의한 강조, 2) 강조 어휘 사용에 의한 강조, 3) 음성적 장치에 의한 강조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어 강의 담화를 대상으로 강조 발화의 특성을 추출하되, 크게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소개된 유형 외에 다른 유

형의 강조 발화가 존재하는지, 또한 강의 담화를 이해할 때 핵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강조 발화의 유형을 추출하고자 한다. 통사적 장치에 의한 강조와 강조 어휘 사용에 의한 강조, 음성적 장치에 의한 강조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한국어 강의 담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통사적 장치에 의한 강조와 강조 어휘 사용에 의한 강조, 음성적 장치에 의한 강조의 특징을 파악하되, 특히 음성적인 특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외국어 듣기의 경우에는 모국어 듣기와 달리 들리는 소리의 음성적 특성에 크게 기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 강조 발화의 음성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강의에 나타난 강조 발화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연구자 본인이 2011학년도 1학기에 강의한 ‘한국어음운교육론’이라는 온라인 강의 전체를 녹음하였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 강의 발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므로 내용 집중도가 높고, 또한 일방적 강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 오로지 강의자의 발화로 강의 내용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강의자가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차이를 좀더 뚜렷하게 드러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강조 발화의 특징이 매우 잘 드러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녹음된 강의 음성은 총 14시간 분량이며, 음성은 mp3 파일로 저장되었다. 전체 14시간 중에서 3시간 분량(21,325어절)³⁾ 강의 녹음 자료를 들으면서 발화 내용을 전사하였다. 강의를 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강의자가 강조해서 발화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 전사 자료에 표시를 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강조 발화 부분을 다시 들으면서 강조 발

3) 전사를 할 때 실제로 어떻게 발음되었는지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전체 자료가 21,325어절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발음... 이’와 같이 휴지 표시를 하기 위해 띄어쓰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 어절 수는 이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화의 유형을 정리해 보았다.

(2) 한국어 강의 담화에 나타난 강조 발화의 유형

ㄱ. 강조 어휘 사용에 의한 강조

- 어휘: 중요하다, 기억해야 한다 등
- 인과관계 접속사: 그래서, 결국 등
- 강조 부사: 꼭, 제일, 반드시, 바로 등
- 강조 보조사: 도, 만 등4)

ㄴ. 통사적 장치에 의한 반복

- 반복에 의한 강조: 시옷이 있어요 시옷.
- 대구(對句)에 의한 강조: 모든 발음이 아니라 틀리기 쉬운 발음
- 질문에 의한 강조: 발음교육이 왜 필요할까요?
- 명제화에 의한 강조

의문형: ‘음성적으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가르쳐 줘야

평서형: ‘정확한 발음은 결국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준다’ 라고 할 수 있고요.

ㄷ. 음성적 장치에 의한 강조

- 강세에 의한 강조5)

강도(intensity): 그건 ‘다, 타, 따’를 **정확하게 구별하도록 알려주는**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6)

4) 조사는 어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유형을 ‘강조 어휘 및 문법 형태 사용에 의한 강조’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특정한 형태의 사용이라는 점에서 특정 조사에 의한 강조도 어휘적 강조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강조 보조사의 사용에 의한 강조 유형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편의상 ‘강조 어휘 사용에 의한 강조’ 유형에 포함시켰다.

5) 여기서 ‘강세’라는 것은 영어의 *réport*나 *repórt*처럼 돌돌리는 음절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즉 언어학적으로 의미 변별에 관여하는 운소로서의 강세(accent)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단순히 강하게 발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길이: 발음이 너~무 나빠서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된다든가
- 발화 속도에 의한 강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학생들 언어에 있는 변이음을 활용한다 라는 것인데요.7)
 - 휴지(pause)에 의한 강조
 - 선행: 결국 그 학생의 수준이 ... 1급이었어요.
 - 후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휘와 문법 ... 이 필요하다

(2)에서 제시한 것은 본고에서 분석한 강의 발화 자료에서 추출한 강조 발화의 유형인데,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명제화’에 의한 강조와 ‘강세’ 중에서 ‘길이’에 의한 강조, 발화 속도에 의한 강조 등의 유형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휴지에 의한 강조도 강조할 부분에 선행하는 휴지와 후행하는 휴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유형이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래서’라는 것은 뒤에 중요한 내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담화표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어휘를 말할 때 화자는 이 부분에 강세를 줘서 강하게 발음하거나 느린 속도로 발화하는 등 다른 음성적인 강조를 동시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에서 제시한 유형을 크게 어휘, 통사적 강조(2ㄱ, ㄴ)와 음성적 강조(2ㄷ) 유형으로 나누어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강조 발화 듣기 전략을 교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6) 강하게 발음한 부분을 진한 글씨로 표시하여 강조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7) 글씨를 옆으로 늘린 넓은 글씨 모양을 사용하여 발화 속도가 느려진 것을 시각적으로 표시하고자 하였다.

3. 한국어 강조 발화의 어휘적, 통사적 특성

이 장에서는 (2)에서 제시한 한국어 강의에 나타난 강조 발화 유형 중에서 어휘적, 통사적 변화를 통해 청자들에게 발화 내용이 강의의 핵심 내용임을 알려 주는 유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강의를 들을 때 중요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는 기술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먼저 (2-1) 강조 어휘 사용에 의한 강조 발화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자. 강의자가 강의를 할 때 특정 내용이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 ‘중요하다, 기억해야 한다’와 같은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등과 같은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꼭, 제일, 반드시, 바로’ 등과 같은 부사를 사용하거나 ‘도’나 ‘만’ 같은 강조의 의미를 갖는 보조사를 사용해 특정한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학문 목적 학습자들에게 강의를 들을 때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표현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실제 강의 듣기를 할 때 이러한 표현을 활용해 듣기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표현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3) 중요도를 나타내는 어휘 사용에 의한 강조 발화의 예

- ㄱ. 중요하다: 억양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 ㄴ. 억양...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 ㄷ. 음성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4) 인과관계 접속사 사용에 의한 강조 발화의 예

- ㄱ. 그래서: 그래서... 한국어 발음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냐
- ㄴ. 결국: 결국... 학생들에게 정확한 발음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5) 강조 부사 사용에 의한 강조 발화의 예

- ㄱ. 너무: 억양이 자연스러우니까 너무 한국어를 잘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 ㄴ. 정말: 발음이 정말 나빠서
- ㄷ. 굉장히: 한국어 억양은 굉장히 단순해요.
- ㄹ. 제일: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할 때 제일 먼저 익히는 것이 억양입니다.
- ㅁ. 더: 사람들 앞에서 더 많이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 ㅂ. 바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발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ㅅ. 꼭: 이 두 가지를 꼭 가르쳐야 되고요.
- ㅇ. 반드시: 수백 번 따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6) 강조 보조사 사용에 의한 강조 발화의 예

- ㄱ. 도: 억양...도 가르쳐야 된다는 걸
- ㄴ. 만: 시옷이 그냥 예쓰 발음이다...라고...만 가르치면

학습자들에게 (3)~(6)에 제시한 강조 표현을 활용해 핵심 내용 듣기 전략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강조 어휘에 의한 강조가 강조 발화의 한 유형이 될 수는 있으나, 특이한 것은 이런 예들이 ‘중요하다’나 ‘그래서’, ‘꼭’과 같은 특정 어휘의 사용만으로 강조 발화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분석 대상 자료에서 강의자가 사용한 ‘그래서’라

는 접속사가 모두 강조 발화로 선택된 것은 아니며, 이 중에 일부만이 강조 발화로 선택되었다. ‘그래서’를 약하게 발음한 경우에는 강조 발화로 선택되지 못했으며, 강하게 발음하거나 ‘그래서’ 뒤에 휴지를 둔다거나, 발화를 천천히 하면서 명확한 발음으로 말한다거나 하는 등과 같은 다른 음성적인 특성을 동반할 때 이것이 강조 발화로 인식되었다. 이것은 (3)~(6)에 제시한 다른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다. 이것으로 보아 특정한 ‘어휘’의 사용은 결국 강조 발화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통사적 변화에 의한 강조 발화의 경우는 어떠한지 그 예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반복’의 경우를 살펴보자. ‘반복’의 경우에는 외국어 듣기에서 주제를 파악하거나 핵심어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듣기 전략으로서, 실제 한국어 듣기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때 특정 단어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구 이상의 단위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

(7) 반복에 의한 강조 발화의 예

ㄱ. 단어 반복: 시옷이 있어요 시옷.

억양... 억양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ㄴ. 구 반복: 근까, 낭독이라는 거는 어, 읽기의 한 가지 방식이 될 수는 있지만 읽기의 본연의 의미는 문자를, 글씨를 읽고 그거,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고 해독하는 것을 읽기라고 하죠. 근까 지나가다가 어, 표지판에 화장실 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지금 화장실이 급하니까 그 화장실이라는 글자를 보고 막 뛰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글자를 보고,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읽기예요. 자, 그렇다면 눈으로 글자를 보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발음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예요. 발음을 잘 몰라서 그 글자를 보고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까 하는 건데

(7ㄱ)의 경우에는 어휘만이 단순히 반복되는 경우인데, 이때 반복되는 어휘는 문장을 구성하는 다른 어휘보다 돋들리게 발음이 되고 있다. 즉 반복을 하면서도 화자가 동시에 강하게 발음하는 것이다. (7ㄴ)의 경우는 ‘읽기와 발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발음’은 ‘소리’와 관련되는 것이고 ‘읽기’는 ‘문자’와 관련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글자를 보고, 눈으로 보고’ 등과 같은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도 ‘글자를 보고, 눈으로 보고’ 등의 표현이 발화 내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돋들린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반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강조의 한 기법이기는 하지만, 반복 그 자체보다는 강하게 발화하거나 휴지를 두거나 하는 등의 음성적 특성을 동반할 때 비로소 강조 발화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반복’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대비시킴으로써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인 ‘대구’, 그리고 청자에게 질문을 던져 청자를 해당 주제로 끌어들이므로써 화자가 발화하는 내용에 청자가 집중하여 보다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질문하기’도 중요한 내용을 부각시키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효과적인 말하기 방법이다.⁸⁾ 따라서 학습자들

8) 질문하기는 고대 희랍에서부터 활용된 매우 효과적인 교수 기법 중의 하나이다. (이창덕 2008) 교수자가 학습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중에는 교사가 모르는 정보를 알고 싶어서 던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수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학생들에게 묻는다. 이에 이창덕(1992)에서는 이런 질문이 상대방에게 어떤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질문의 기제를 이용한 일종의 대화 책략이라고 보았다.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교사의 질문은 대체로 학습자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박용익(2003)에서는 수업 중 이루어지는 교사의 질문을 여러 가지 유형으

에게 문장의 구조가 대구를 이루고 있다면 둘 중 하나를 강조하거나 두 가지가 서로 대비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또한 교수자가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이 곧 강의의 핵심 내용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를 이용해 강의 듣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⁹⁾

그런데 아래에 (8)과 (9)에서 ‘대구에 의한 강조 발화’와 ‘질문에 의한 강조 발화’를 몇 가지 예로 제시하였는데, 이들의 발화를 들어 보면 ‘반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 모두 중요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 부분이 강하게, 천천히 또박또박, 휴지를 두어서 발음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8) 대구(對句)에 의한 강조 발화의 예

- ㄱ. 모든 발음이 아니라 틀리기 쉬운 발음
- ㄴ. 조음법뿐만 아니라 발음 교육을 할 때는 청취법
- ㄷ. 글자 하나하나의 발음이 들어오지, 억양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 ㄹ. 조음법을 설명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걸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9) 질문에 의한 강조 발화의 유형

- ㄱ. 발음교육이 왜 필요할까요?
- ㄴ. 발음 능력이 좋으면 말하기 능력이 좋다...라고 할 수 있을까?

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의 한 가지로 강조의 기능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9)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던지는 모든 질문이 강조 발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정보를 물어보기 위해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본고에서도 녹음된 강의 자료에 출현하는 질문 중에서 일부만을 강조 발화로 판단하였는데, 좀더 정밀한 연구가 있어야 알 수 있겠지만 대체로 교수자가 질문을 던지고 바로 스스로 대답을 하는 경우에는 강조 발화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제화에 의한 강조 발화 유형’을 살펴보기로 하자.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마치 하나의 명제처럼 전후의 발화와 분리하여 제시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본고에서는 ‘명제화’로 명명하였다. 이런 명제화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마도 중요한 내용을 하나의 제목이나 표어처럼 표현함으로써 청자가 그 소리를 듣고 청각적인 소리를 제목이나 표어와 같이 머릿속에 굵은 글씨로 이미지화하기를 바라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명제화에 의한 강조 발화의 예

ㄱ. 화제 제시

- 의문형: 그런데 읽기, 쓰기는 어떨까... 하는 건데
- 평서형: 발음 능력이 좋으면 듣기 능력...이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건인가?

ㄴ. 요약 정리

- 의문형: 음성적으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가르쳐 줘야 하고
- 평서형: 정확한 발음은 결국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준다...라고 할 수 있고요.

(10)과 같은 ‘명제화하기’ 유형은 본고에서 분석한 강의 발화에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유형은 본격적으로 어떤 소주제를 전개해 나가는 부분에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주로 (10ㄱ)과 같이 소주제를 제시하는 부분이나, (10ㄴ)과 같이 소주제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많이 쓰인다.

그런데 (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명제화에 의한 강조 발화’는 모두 끝에 휴지가 따라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명제화된 부분을 들어 보면 앞의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두 강하게 발음되거나 느린 속도로

명확한 발음으로 발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통사적 변화에 의한 강조 발화 유형에 속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강조 기법이기는 하나, 이들 모두 강하게 말하기, 휴지 두어서 말하기, 천천히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기와 같은 음성적 특징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강조 발화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음성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재형(1987)에서도 통사적 장치에 의한 강조 유형들이 모두 강세와 같은 음성적인 강조를 동반한다고 하여, 최종적으로는 강조 발화의 유형을 다시 음성적 강조가 잉여적인 경우, 음성적 강조가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음성적 강조가 필수적인 경우의 3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결국 구어 담화에서의 강조 발화는 음성적인 강조를 동반한다는 것이다.

4. 한국어 강조 발화의 음성적 특성

앞 장에서 필자는 강의 담화에 나타난 여러 가지 강조 발화의 유형 중에서 특정 어휘를 사용하여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는 방식은 그 어휘가 사용된 모든 경우를 강조 발화로 보기 어려우며 강조를 나타내는 음성적 특징을 동반할 때만 강조 발화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 반복이나 대구, 질문, 명제화 등과 같이 통사 구조를 변형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드러내는 강조 발화 유형도 모두 음성적 강조를 동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보아 강조 발화의 핵심은 바로 음성적 강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청자가 강의 내용을 들을 때 강조 발화라고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음성적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 제시한 한국어 강의 담화에 나타난 강조 발화의 유형 중 음성적 특성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강세에 의한 강조’, ‘발화 속도에 의한 강조’, ‘휴지에 의한 강조’의 세 가지가 있다.¹⁰⁾

(11) 강세에 의한 강조 발화의 예

ㄱ. 강도(intensity): 그건 ‘다, 타, 따’를 **정확하게 구별하도록 알려주는**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ㄴ. 길이: 발음이 **너~무** 나빠서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된다든가

(11)은 강세에 의한 강조 발화 유형의 예를 제시한 것으로 강세 발화는 다시 (11ㄱ)과 같이 특정 음절을 강하게 발음하는 유형과 (11ㄴ)과 같이 특정 음절을 강하게, 길게 발음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강하게 발음하거나 길게 발음함으로써 발화 내용이 청자에게 잘 들릴 수 있도록 말하려는 것인데, 이처럼 강의 발화에서 강하게 들리는 부분을 구별해서 듣는다면 강의의 핵심어를 찾아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보다 쉬워질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강의를 들을 때 강하게 발음하는 소리를 구별해서 듣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발화 속도에 의한 강조 발화의 예들을 살펴보자. 중요한 내용은 청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화자는 중요한 내용을 얘기할 때 발화 속도를 천천히 하면서 발음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12) 발화 속도에 의한 강조 발화의 예

ㄱ.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학생들 언어에 있는 변이음을 활용한다 라는 것인데요.

10) 본고에서는 강조 발화에 나타나는 음성적 특성을 강도, 길이, 발화 속도, 휴지, 이 네 가지만을 포착했으나 실제로는 훨씬 더 다양한 음성적 특성을 동반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명숙(2009)에서 구어 연구를 위해서 다양한 구어 수행 변인에 따른 음성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예로 억양, 발화 단위, 휴지, 발화 속도, 강도, 발음의 명료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강조 발화의 경우에도 이러한 모든 특징이 비강조 발화 부분과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상되나 본고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 ㄴ. 근데 시옷은 ‘사, 서, 세, 소, 수, 스’, 이렇게 다른 모음이 올 때 ... 와 그리고 ‘시’ ... 처럼 ‘이’ 모음이 올 때 이 시옷의 발음이 좀 달라요.

(12)에서 제시한 예에서 보듯이 앞부분은 발화 속도가 빠르다가 강의 핵심 내용 부분에 가서 갑자기 발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혜영(2002)에서도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 듣기 교육을 할 때 ‘말의 속도가 갑자기 변화되고 천천히 명백하게 강조하여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이는 중심 생각이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강의 듣기 기술을 교육할 때 발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발음의 명료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강의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발화 속도의 차이를 민감하게 듣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휴지에 의한 강조 발화의 예를 살펴보자. (13)에서 보듯이 중요한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 문장 중간에 휴지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휴지의 위치는 중요한 내용, 즉 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의 앞에도 올 수 있고 뒤에도 올 수 있다.

(13) 휴지(pause)에 의한 강조 발화의 예

ㄱ. 선행

- 결국 그 학생의 수준이... 1급이었어요.
- 그렇지만 영어권 학생들에게, 일본인 학생에게, 중국인 학생에게 이 소리는... 하나의 소리에요.

ㄴ. 후행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휘와 문법...이 필요하다

- 그니까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이 소리가 하나의 소리...인 거죠.

(13)에서 보듯이 강조 발화를 위해 사용되는 휴지는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의 앞부분에도 올 수 있고, 뒷부분에도 올 수 있는데, (13ㄱ)과 같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의 앞에 휴지가 오는 경우는 청자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청자에게 화자가 다음에 얘기할 내용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13ㄴ)과 같이 휴지가 핵심 내용의 뒤에 오는 경우에는 청자로 하여금 화자가 방금 이야기한 중요한 내용을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발화 중간에 휴지를 넣는 것은 청자를 고려한 말하기 방식의 하나로 매우 중요한 강조 발화의 음성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강의를 들을 때 발화 중간에 갑자기 휴지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곧 중요한 내용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러한 휴지에 의한 강조 발화를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강의를 듣는 핵심 기술의 하나로 이야기되는 강의의 핵심 내용을 구별해서 듣는 것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 강의 담화에서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는 강조 발화의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강의 담화에 나타나는 강조 발화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제 강의 발화 자료를 녹음하여 분석하였다. 강의 발화를 분석하여 먼저 강조 발화의 유형을 추출하고, 각 유형별 예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강조 발화의 핵심적인 특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강조 발화의 유형은 크게 강조 어휘 사용에 의한 강조, 통사적 변화에 의한 강조, 음성적 변화에 의한 강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음성적 특성에 의한 강조가 강조 발화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 음성적 특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강의 듣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이며, 이들의 한국어 강의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연구자의 강의를 녹음하여 분석하였는데, 본고에서 논의한 강조 발화의 특성이 개인의 발화 스타일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모든 한국어 강의 담화에 나타나는 강조 발화 유형을 집대성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강의 담화에서의 강조 발화로 어떤 유형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핵심적인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첫 시도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화자가 발화한 강의 담화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본고에서 제시한 한국어 강의 담화의 강조 발화 유형 외에 추가적인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국어 강의 담화에 나타나는 강조 발화 유형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인선(2005). "Foreign students' views of Academic Listening and speaking skills in Korean Universities", 이중언어학 27, 이중언어학회, 21~40쪽.
- 구지민 (2004). 「강의 담화표지의 학습이 강의 청해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선미 (2007).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강의 듣기 전략 교육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내별 (201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강조 표현 교육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용익 (2003). 「수업대화의 분석과 말하기 교육」, 역락.
- 배윤경 (2011). "한국인, 외국인 간 강의 듣기 전략의 사용 양상 비교", 한국어교

육 2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13~232쪽.

- 손정란 (2009). 「노트 필기 전략 훈련이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강의 듣기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선경 (2006). 「대학 수학 목적의 한국어 듣기 교육 방안 연구 : 강의 담화의 특질과 듣기 전략 적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미 (1993). 「현대 국어의 강조 표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창덕 (1992). “의문의 본질과 의문문의 사용 기능”, 연세어문학 24,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95~134쪽.
- 이창덕 (2008). “교사 질문발화와 학생 반응에 대한 교사 피드백발화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15, 국어교과교육학회, 177~216쪽.
- 이혜영 (2002). “한국어 듣기 교육의 이론과 실제”,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93~127쪽.
- 임성규 (1989). 「현대국어의 강조법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명숙 (2009). “구어 연구를 위한 음성학·음운론의 과제”, 한국어학 45, 한국어학회, 95~112쪽.
- 정재형 (1987). 「현대 국어의 강조 표현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rown, G. & Yule, G. (1983). *Discourse Analysi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yland, K. (1998). Persuasion and context: The pragmatics of academic metadiscourse. *Journal of Pragmatics* 30, pp. 437-455.
- Hyland, K. (2005). *Metadiscourse: Exploring interaction in writing*. London: Continuum. *Journal of Pragmatics* 30, pp. 437-455.
- Schiffirin, D. (1980). Metatalk: Organizational and evaluative brackets in discourse *Sociologica Inquiry: Language and Social Interaction* 50. pp. 199-236.

정명숙(Jung Myungsook)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부
608-738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 15
전화번호: (051) 640-3746
전자우편: jms@bufs.ac.kr

접수일자: 2012. 8. 20
심사(수정)일자: 2012. 9. 10
게재확정: 2012. 10. 22